

“응급·전문성 갖춘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량 키울것”

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

호남권 ‘보훈 의료’ 빈틈없이 책임
소통 중심 경영으로 조직문화 개선
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 폭넓게 지원



“광주보훈병원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응급 성과 전문성을 갖춘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가겠다.”

올해부터 3년간 광주보훈병원을 이끌어 가게 된 김형준 신임 병원장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운영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병원장은 소통·상생 경영을 토대로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훈가족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과 함께 나아가는 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로써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보훈가족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지역민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장, 한국·독일 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소장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조혈모세포학회 학술위원장과 대한혈액학회 AML/MDS 연구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병원장은 또 대한암학회 Lilly 학술상,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전남대 의대 서봉의 학상 등을 수상했다.

다음은 김형준 병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먼저 취임 소감 및 앞으로 병원 운영 계획은.
▲광주보훈병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현신에 대

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훈 병원 운영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광주보훈병원을 만들어 가겠다.

-향후 3년 경영 기조로 소통경영·상생경영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기조를 통해 병원 운영과 조직 전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

▲앞으로 광주보훈병원은 소통 중심의 경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직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보훈가족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며, 지역사회는 우리 병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의료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관성처럼 받아들여 왔던 ‘당연한 일’들 속에서 벗어나,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는 그 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병원장이

앞에서 걸고 가는 변화가 아니라, 구성원 여러분의 결에서 호흡을 맞추며 변화의 원주를 돋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병원 운영 전반에 상생과 협력 경영을 강화해, 지역안정형 필수의료 수행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

-광주보훈병원은 40여 년간 보훈의료의 종주 역할을 해왔다. 지금 시점에서 보훈의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인가.

▲보훈의료의 본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현신에 대해 국가가 미망히 져야 할 책임을 의료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보훈병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제때, 불편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남권 보훈의료를 빈틈없이 책임지게 것이다. 이 사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 나가야 할 가치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전략은 무엇인가.

▲지역의료생태계구축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광주보훈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약한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 응급의료 인력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플랫폼 등 이러한 공공의료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중증환자 전원이나 공동 진료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병원이 중점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내에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응급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심뇌혈관질환과 감염병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지역 안에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체계와 의료자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과 협내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이 광주보훈병원 운영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는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교훈은 의료의 질만큼이나 환자가 병원을 신뢰하게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환자들은 치료 결과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통해 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체감했다. 혈액내과 전문의로 중증 환자를 오래 진료해온 경험 역시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과 책임의 관점으로 병원 운영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광주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데 분명한 강점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 그리고 병원 구성원들에게 병원장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광주보훈병원은 보훈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믿고 의지하는 공공의료의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전문성과 현신이 모일 때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병원장으로서 그 책임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겠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문신 시술 안전교육’ 큰 호응
의료·문신업 등 150여명 참석



30여년 만에 의료인 아닌 자격 있는 비의료인도 가능하게 된 문신 시술에 대한 교육 열기가 광주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문신중앙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의 제69회 문신사 위생·안전교육’이 지난 23일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을 비롯한 의료·문신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무등홀)에서 열렸다. 특히 눈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부산·전북의 문신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사진>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는 판정에 따라 의료인만이 가능했다가, 33년 만인 지난해 9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들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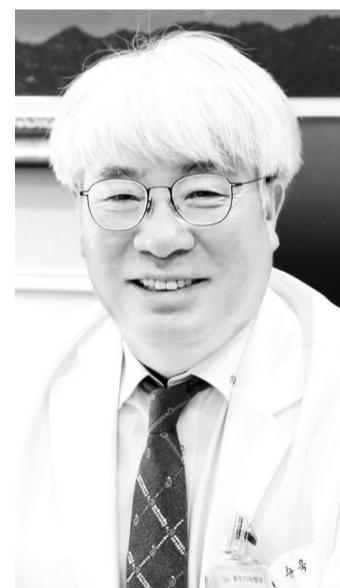
이날 교육은 4부로 나뉘어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소독과 멸균의 개념 및 적용 방법(지승규 내과 전문의) ▲감염의 이해(한시현 단국대병원 간호사) ▲시술 안전 및 위생관리(위성정 한국열린사이비대학 교수) ▲현장 실무 중심 안전·작업환경 관리(박화선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다.

이날 서정성 부회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계와 문신업계가 협력해 시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고 유익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안전 기준과 교육 체계 정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NEXT 120’ 가장 신뢰받고 따뜻한 병원 되도록 최선”

이승우 광주기독병원장 취임 2주년

의료혁신·선교적 사명 다한 120년
공공의료·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진료·연구·행정 AI스마트병원 도약



-병원장 취임 2년을 맞아 소회와 느낀 점은.

▲광주기독병원은 120년 동안 ‘가장 아픈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병원이었다. 지난 2년은 그 소중한 역사를 다시 되새기며, 다음 12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방향은 무엇이었나.

▲병원의 체질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으며, ‘120년 받은 사랑을 나눔과 감사로 충만하게 이어가자’는 비전 아래 의료혁신과 선교적 사명을 다시 공고히 하는 기간이었다.

이승우 광주기독병원장으로서 AI를 적용하는 AI 기반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기술은 목적이다.

-올해의 비전으로 제시한 ‘NEXT 120’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6년은 ‘NEXT 120’, 일어나 빛을 발하는 광주기독병원의 비전이다. 이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핵심 방향은 네 가지이다. 첫째, 진료·연구·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기반 스마트 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기술은 목적이다.

-세계 최고의 선교병원을 목표로 제시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카딩턴라파기념관을 중심으로 선교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국제 연구 협력과 우수 인재 양성, 첨단 의료역량 강화를 통해 뉴욕장로교병원(New York-Presbyterian Hospital)과 같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선교병원을 지향하고자 한다.

-공공의료 측면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종종·응급·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평상시에는 지역 병원과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광주기독병원의 변함없는 사명이다.

-‘2040 비전’과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과 추진 방향은.

▲2026년은 ‘NEXT 120’ 장기 발전의 원년으로, 2040 비전을 향한 3주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이다. 2026~2030년은 기반 구축기, 2031~2035년은 도약·확장기, 2036~2040년은 완성·확산기로 설정했다.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TOP 50 치료중심 종합병원’으로, 글로벌 연구 리더십 확보, 혁신적 치료 인프라 구축, 의료선교적 사회책임 완수를 3대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과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NEXT 120’의 여정에 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이 가장 신뢰받는 병원, 가장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KS병원 ‘긴급치료병상’ 확충 신종감염병 고위험군 환자 치료

광주지역 KS병원이 신종감염병 등의 확산에 대비해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긴급치료병상 운영은 광주지역 종합병원으로는 KS병원이 최초 사례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로 운영되다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위기 시에는 응급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고위험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게 된다.

KS병원은 준중증 병상 6개와 투석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7개 등 총 13개 병상의 긴급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KS병원은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증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